

SM, 'Save SM 3.0' 주주제안 캠페인 확대 개편

- 적대적 M&A에도 흔들림 없이 SM 3.0 전략 추진할 것
- 기존 캠페인 사이트에 '전자 의결권 위임' 기능 강화

3월 6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팬, 주주 중심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의 도약'을 위한 SM 3.0 전략의 비전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통 확대에 나섰다.

SM은 오는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제안 캠페인 웹사이트 'SAVE SM 3.0' (<https://3.smtown.com/>)을 확대 개편했다. 기존에도 의안설명서, 의결권 위임하기 등을 제공해왔으나, 주주들이 이번 이사회 제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차원이다. 특히, 캠페인 이름에는 하이브의 적대적 M&A 시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SM 3.0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SM 3.0 전략은 멀티 제작센터 및 멀티 레이블 체제 전환, IP 수익화 전략, 글로벌 확장 전략, 투자 전략 등을 골자로 '팬과 주주 중심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담고 있으며, 향후 2025년 별도 매출 1.2조원 및 영업이익 4,300억원 달성, 3년 내 기업가치 3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SM은 이번 주총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 갖춘 이사회 구축 ▲지속가능한 SM 발전을 위한 선진화된 정관 도입 ▲주주 가치 제고 위한 현금배당 확대 등을 핵심 안건으로 제안했다.

특히, 이번 주총이 최대주주 중심의 경영이 아닌 모든 주주를 위한 경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인 만큼 캠페인 웹사이트 구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사회가 제안하는 SM 3.0 전략의 비전 및 계획과 주주와 팬들이 궁금해하는 요소를 자세하게 공유하는 'SM 3.0 알아보기', '주주와의 약속', '팬과의 약속', '뉴스룸' 카테고리 외에도, 안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 '의결권 위임하기'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주주들이 주총에서 주주 가치 하나만을 기준으로 투표에 임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SM은 주총 전까지 'SAVE SM 3.0'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특정 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들의 가치 제고를 위한 SM 3.0 전략과 비전을 적극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SM 관계자는 "'SM이 SM 3.0의 계획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많은 이해관계자 분들과 공유하고자 캠페인 웹사이트를 확대 개편했다"면서 "특정 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를 위한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